

# 한국을 닮은 나라,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11월 29일 실시된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집권 중도좌파연합 확대전선(FA) 소속 호세 무히카(74) 후보가 승리한 것. 무히카 후보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 FA는 지난 2004년 대선에서 타바레 바스케스 현 대통령 승리로 우루과이 사상 첫 중도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데 이어 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아직은 중남미의 먼 나라로만 느껴지는 우루과이. 그러나 한국과 닮은 점이 많은 우루과이는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다.

글\_ 이선원 지부장(INKE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지부, dirslw@yahoo.co.kr)

## \* 한국-우루과이 비교

구분	한국	우루과이
국토면적	22.2만km <sup>2</sup> (9.95만km <sup>2</sup> - 남한)	17.6만km <sup>2</sup>
인구(06)	4,845만 명	332만 명
GDP(07)	9,591억 달러	231억 달러
1인당GDP(07)	19,751 달러	6,963 달러
경제성장률(07)	5.0%	7.4%
교역규모(07)	7,283.4억 달러	100.8억 달러
수출(07)	3,714.9억 달러	44.9억 달러
수입(07)	3,568.5억 달러	55.9억 달러
실업률(07)	3.2%	9.6%
외환보유고(07)	2,622억 달러	41.2억 달러

(자료 : 우루과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한국과 우루과이를 단순 비교하면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지만 역사와 사회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흡사한 점이 많다.

## \_ 우루과이의 독립

우루과이는 19세기 초 우루과이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르티가스 장군을 중심으로 한 몇몇 장군들이 지금의 우루과이 지역에 독립국가를 선포하며 국가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1825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남하를 막기 위해 우루과이의 독립을 지원하였고, 우루과이는

브라질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며 1828년 완전히 독립하였다.

한국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근대사만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를 잃었다. 미국과 소련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독립을 이루었지만 한국전쟁이라는 내분을 끝으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한편 우루과이가 독립하기 전, 아르티가스 장군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견제를 심하게 받아 파라과이로 망명했을 당시 우루과이 국민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33인을 독려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무관하지 않다.

## \_ 우루과이의 지정학적 위치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러시아와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조정을 해결하는 위치이듯이, 우루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는 남미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미국과 남미 국가들과의 정치적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또한 우루과이의 인구가 약 350만 명이고 브라질이 1억6천, 아르헨티나가 4천만 명인 것과 한국이 4천5백만, 중국이 13억, 일본이 1억2천만 명인 것도 인구비례에 대비하면 유사한 점이다.

## \_ IMF 위기를 벗어난 한국과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2002년,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성장둔화와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 주요 수출품인 육류수출의 규제적 발생,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로 인한 비거주자의 대규모 인출사태로 인한 은행영업 중단 등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국이 IMF 위기를 벗어난 과정이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지의 실천으로 본다면 우루과이 또한 남미 국가답지 않게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국제사회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IMF 금융위기를 벗어났다.

우루과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및 IMF,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긴급 지원을 획득하고 긴축재정 정책, 4개의 부실은행 청산과 새로운 상업은행 설립을 포함한 금융구조개혁 등을 추진, 대외 민간 부채의 93%에 대한 상환 기간 재조정에도 성공하였고 IMF와의 연례 협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구제금융 10개월 만에 GDP 성장률 2.5%, 무역수지 흑자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결국 2004년 우루과이 실질 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하고 GDP 3.6%에 달하는 정부재정 흑자, 수출 33% 증가, 수입 40% 증가 등을 달성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9%대로 안정되고, 실업률은 17%에서 13%로 감소했다. 이러한 성장은 2007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제관계

한국과 우루과이는 1964년 국교수립 합의가 이루어진 후 45년간 경제관계를 유지해왔다. 97년에는 처음으로 양국 교역량이 1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향후 남미의 경제위기로 교역량이 지속되지 못하고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 다시 1억 달러를 넘어섰다.

\* 대한국 수출입 규모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10 현재
수출액	22	25	31	18	21
수입액	49	56	60	95	43
무역수지	-27	-31	-29	-77	-22

한국의 대 우루과이 수출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류, 철강류, 보일러 관련 제품류, 철도기계 제품류, 전기기기류, 자동차제품류 등이 주된 품목이며 수입품목으로는 낙농품, 어류, 조제식품, 원피 및 가죽, 양모제품 등이지만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품목인 소고기가 현재까지 수입규제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항상 적자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전망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 사람이듯 우루과이의 유일한 희망도 사람뿐이다. 작은 면적과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한 인력개발이라는 것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또 다시 찾아온 전 세계의 금융위기이지만 올해에 한국과 우루과이는 세계경제가 예상한 마이너스 성장에서 나란히 흑자성장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나라이다.

무엇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흑자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을까? 두 나라 모두 사람이 노력하여 일구어낸 성과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시아 및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처럼 우루과이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거듭나야 남미의 강국, 세계가 인정하는 우루과이가 될 것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시장에 한국의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바라본다.